

[넥스테라 에너지 26Q3 Review] 주당순이익 3.9% 상회, 데이터센터 계약 확정, 투자의견 매수 유지



26.10.21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핵심 요약

- 조정 EPS 1.24 달러, 전년비 +9.7%로 컨센스 상회
- 연방 허브 16.5GW 확정계약으로 지연 우려 해소
- 금리 5.12%에 NTM PE 18.2 배로 추가 압축

조정 주당순이익 1.24 미국달러로 전년 동기 1.13 달러 대비 9.7% 늘었다. 시장 평균 전망(컨센서스) 1.19 달러를 3.9% 상회했고, 커버리지 개시 이후 조정 주당순이익 컨센서스 달성·상회 기록은 14 분기로 이어졌다. 매출은 80.9 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 증가에 그쳐 컨센서스를 5.5% 밑돌았다. 주가는 발표 시점 78.86 달러로 3 개월 전 89.79 달러에서 12.2% 내려온 자리다. GAAP 기준 순이익 47.8 억 달러(주당 2.28 달러)는 비적격 헤지·원전 해체기금 평가손익 같은 조정 제외 항목이 크게 반영된 수치여서 조정 실적과 분리해 읽어야 한다.

직전 분기 콜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시한을 두 달 넘겼다"며 반복 질의했던 연방 데이터센터 허브 계약이 이번에 해소됐다. 경영진은 "텍사스와 펜실베이니아 3 개 프로젝트, 합산 약 16.5 기가와트에 대해 개발·건설·운영 확정계약을 체결했고 연초 이후 초기 자금 57 억 달러를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9.5 기가와트로 거론됐던 규모가 체결 단계에서 더 커졌다. 회사는 이 사업을 자체 자본 투입 없이 수수료 기반으로 수행한다고 설명했고, 수수료 수익이 이미 발생하기 시작했다. 콜 톤은 **5 개 분기 연속 강세**이며 직전 대비 더 강해졌는데, 새 목표를 없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약속의 이행 증거를 쌓는 쪽으로 성격이 바뀌었다는 점이 이번 분기의 차이다.

매출은 거의 늘지 않았는데 이익은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 FPL 순이익 16.2 억 달러(10.7% 증가), 에너지리소스 조정이익 12.5 억 달러(13.2% 증가)다. 재생에너지 부문은 매출이 2.0% 줄었는데도 이익이 늘었고, 백로그에는 3.7 기가와트가 추가돼 36.7 기가와트가 됐다(배터리 2.4 기가와트). 투자 속도 이동 중이다. FPL 연간 자본지출은 직전까지 120 억~130 억 달러로 제시됐으나 이번 보도자료는 "약 120 억 달러"로 하단에 수렴했다. 반면 송전은 "규제·투입자본이 지난해 12 월 이후 약 25% 늘어 약 127 억 달러"라고 밝혀 원안을 넘어섰고, 남부 플로리다 가스 파이프라인에 12 억 달러 합작이 새로 추가됐다. 총액은 지키면서 구성을 바꾸는 흐름이다.

연간 가이던스 3.92~4.02 달러는 유지됐고 회사는 상단 달성을 재확인했다. 3 분기 누적 3.48 달러로 상단의 86.6%를 채웠으니 4 분기에 전년 수준(0.54 달러)만 내도 상단에 닿는다. 그럼에도 셀사이드 목표주가 평균은 한 달 전 99.29 달러에서 96.12 달러로 내려오고 최근 상향 0 건·하향 9 건이다. 10 년물 금리가 5.12%까지 오르며 자본집약 성장모델의 할인율이 높아진 영향이 크다. 향후 12 개월 예상 주가수익비율은 18.2 배로 5 년 평균 22.3 배 대비 18% 할인이다. 여기에 도미니언 합병 심사가 겹친다. 월가는 버지니아 주정부의 지배구조



분리(링펜싱) 요구가 과도하다는 점과, 자본 부담이 가벼운 허브 모델이 기존 70 억~120 억 달러 자산 재활용 계획을 불필요하게 만드는지를 물었다.

펀더멘털은 **강함**이다. 이익 성장률이 3 년 연속 9.7%로 반복되고 백로그·확정계약이 성장 가시성을 받치고 있다. 밸류에이션은 **저평가** 구간으로 본다. 5 년 평균 대비 18% 할인은 금리와 합병 규제 리스크의 이중 할인이며, 11 월 버지니아 심리부터 2027 년 1 월 최종 명령까지 둘 중 하나가 해소되는 일정이 깔려 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한다(확신도 중간). 이익 모멘텀이 유지되는 동안 멀티플만 압축되는 구간이어서 시간이 갈수록 보상이 비대칭으로 기울 여지가 있지만, 규제 결론과 금리 방향이 확인되기 전까지 확신도를 올릴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

항목	이번 분기 실적	시장 전망(컨센서스)	실적 vs 시장	회사 전망(가이드)
매출	80.9 억 달러	85.6 억 달러	-6.3%	—
영업이익	26.2 억 달러	30.5 억 달러	-14.2%	—
조정 순이익(non-GAAP)	25.9 억 달러	24.3 억 달러	+4.4%	—
조정 주당순이익(non-GAAP)	1.24 달러	1.19 달러	+5.1%	—
순이익(GAAP)	47.8 억 달러	—	—	—
FPL 순이익	16.2 억 달러(+10.7%)	—	—	—
연간 자본지출(FPL)	3 분기 24 억 달러	—	—	약 120 억 달러(하단 수렴)
연간 주당순이익	누적 3.48 달러	4.03 달러	+5.1%	3.92~4.02 달러 → 상단 목표

이번 분기 실적 (컨센서스 대비)

항목	25 Q3	26 Q2	26 Q3 컨센	26 Q3 실적	26 Q3 서프라이즈	26 Q4(E)
매출	7.97	7.53	8.63	8.09	-6.28%	7.63
순이익	2.35	2.41	2.48	2.59	+4.45%	1.34
EPS	1.13	1.15	1.18	1.24	+5.09%	0.61

서프라이즈 = (실적-컨센)/컨센 · 단위: 십억 USD (EPS 제외) · 출처: LSEG I/B/E/S

※ 투자 의견 체계 — 적극 매수 > 매수 > 중립 > 비중 축소 > 매도 5 단계. 하우스 뷰의 방향(강세·중립·약세)과 확신도(높음·중간·낮음)를 결합해 부여하며, 목표주가 대비 기대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등급이 아니다. 상향·유지·하향은 같은 종목 직전 발간물의 등급과 비교한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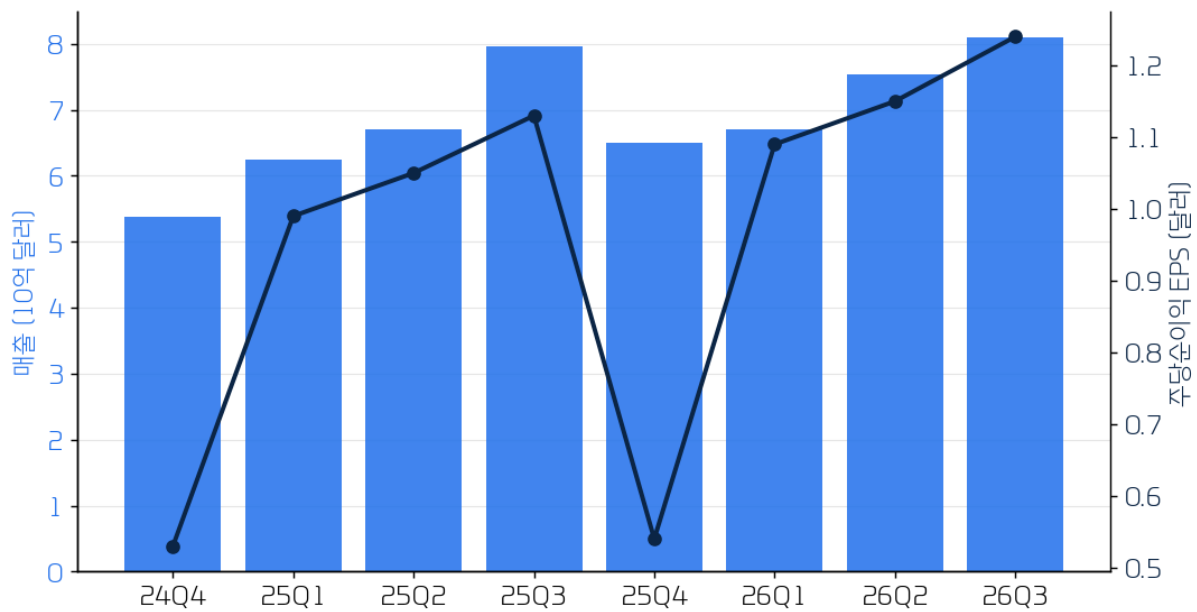
재무 요약 (I/B/E/S 컨센서스)

항목	FY Dec-24	FY Dec-25	FY Dec-26 (E)	FY Dec-27 (E)	FY Dec-28 (E)
매출 (Revenue)	24.75	27.41	30.65	33.55	36.67
↳ 증가율	-11.95%	10.74%	11.80%	9.49%	9.28%
매출총이익	14.26	22.47	27.38	30.80	33.76
↳ 마진	57.62%	81.96%	89.33%	91.79%	92.07%
EBITDA	12.94	14.86	17.91	20.86	22.88
↳ 마진	52.28%	54.21%	58.45%	62.16%	62.39%
영업이익 (EBIT)	7.48	8.28	10.90	12.77	14.21
↳ 마진	30.21%	30.21%	35.56%	38.05%	38.76%
순이익	7.06	7.68	8.50	9.30	10.39
↳ 마진	28.53%	28.03%	27.73%	27.71%	28.32%
EPS	3.43	3.71	4.04	4.39	4.75
↳ 증가율	8.20%	8.16%	8.78%	8.70%	8.37%
잉여현금흐름 (FCF)	4.75	3.21	-17.94	-59.43	-23.70
P/E	21.3x	24.3x	19.5x	18.0x	16.6x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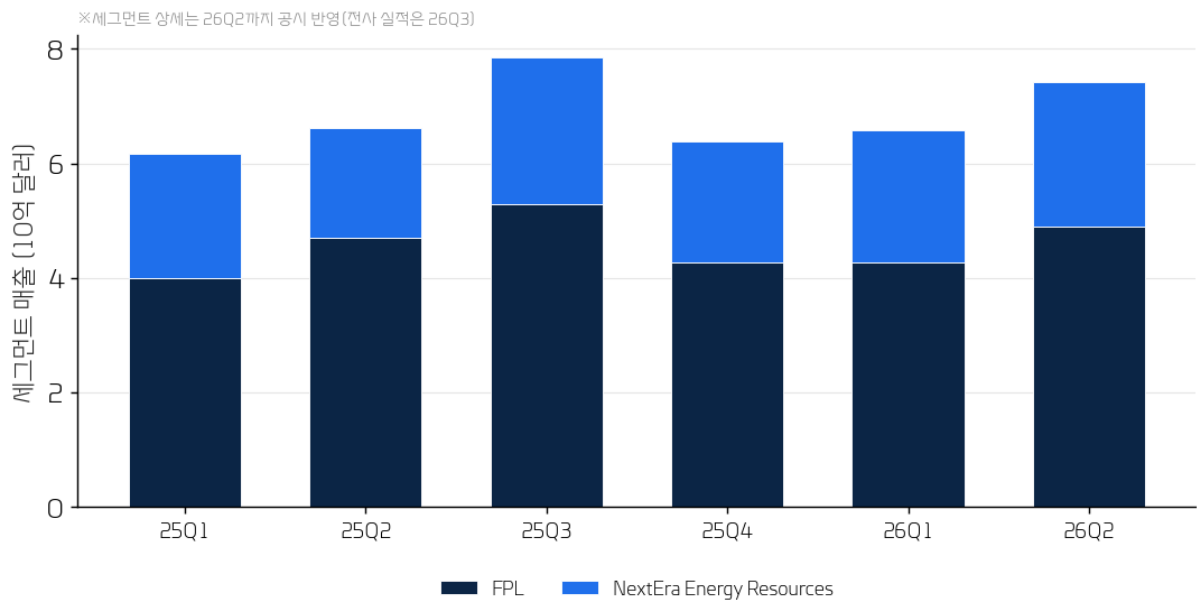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YoY, 단위는 십억 USD

분기 매출·주당순이익(EP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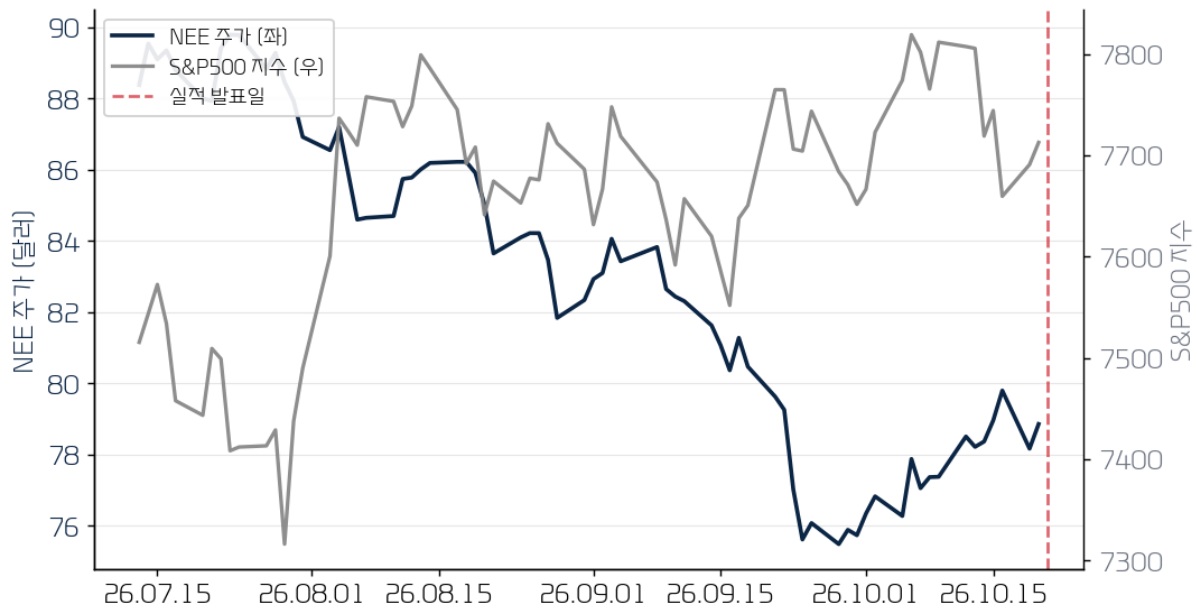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세그먼트 매출 구성(사업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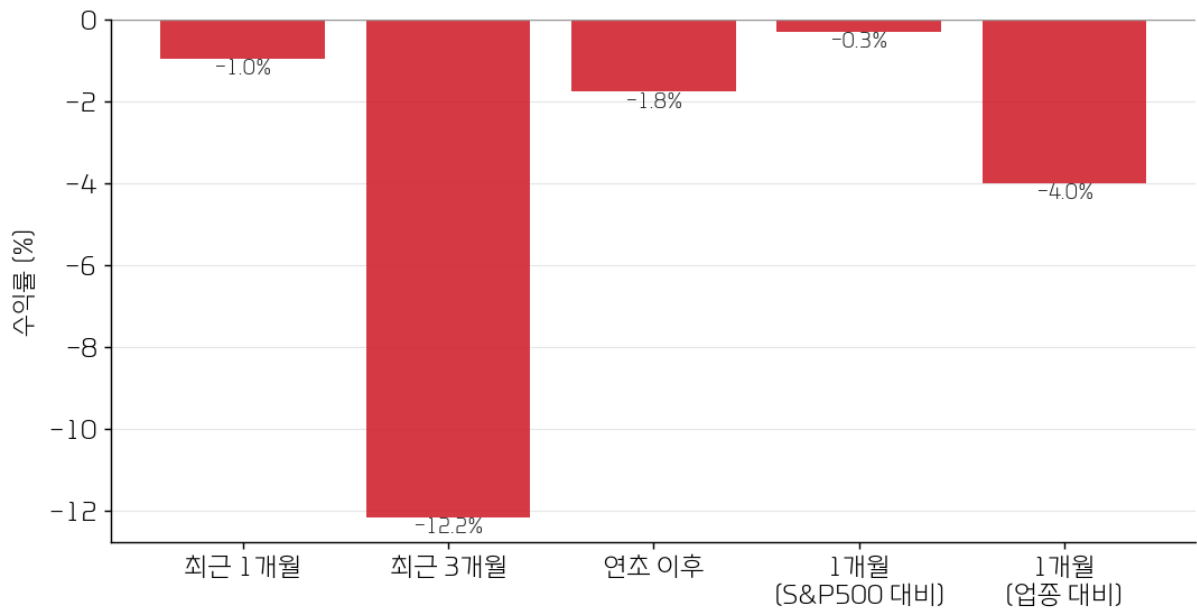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실적 발표 전후 주가 추이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수익률 (절대·시장/업종 대비)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6 대 팩터 점수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